

[보도자료] 쿠팡, 비대면 추석맞이 모바일 상품권 ‘쿠팡 기프트카드’ 선보여

2020. 9. 22.



- 전화번호만 알면 마음 전할 수 있는 ‘쿠팡 기프트카드’ 모바일 상품권 내놔
- 쿠팡 2020 추석 기획전, 금액대별 선물세트 ‘로켓선물하기’ 인기
- 원하는 날짜에 맞춤선물 ‘도착일 지정’ 서비스 호응 높아

2020. 09. 22. 서울 –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‘비대면 추석’을 맞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, 추석선물도 언택트가 대세다. 쿠팡이 ‘언택트 추석’을 맞아 모바일로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 ‘쿠팡 기프트카드’를 내놨다고 22일 밝혔다.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추석 선물을 전하고 싶지만 받는 사람의 취향을 몰라 머뭇거리진다면,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‘쿠팡 기프트카드’가 센스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. 추석, 감사, 격려, 축하, 사랑 등 일상에서 느끼는 따뜻한 마음을 메시지와 함께 원하는 카드 디자인에 담아 소중한 사람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다.

‘쿠팡 기프트카드’는 선물하는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. 고객이 쿠팡에서 ‘쿠팡 기프트카드’ 선물하기를 누르면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. ‘쿠팡 기프트카드’를 선물 받고 수령하기를 누른 수신자는 자동으로 쿠팡 캐시가 적립되고, 쿠팡에서 다양한 물건을 사는데 쓸 수 있다. 적립한 쿠팡 캐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, 수신자가 93일 동안 기프트카드를 수락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자동 취소 및 환불된다.

한편 쿠팡은 다음날 1일까지, 매일 추석 특가 릴레이를 이어가는 ‘2020 추석’ 기획전과 더불어 ‘로켓선물하기’ 서비스에서는 추석테마관을 함께 운영 중이다. 쿠팡은 ‘로켓선물하기’를

통해 2만원 미만, 2~5만원, 5만원 이상, 10만원 이상 등 가격대별 추석 선물세트를 편리하게 선보이고 있다. ‘로켓선물하기’는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카카오톡이나 문자(SMS)로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다. 선물을

받은 사람이 배송지를 입력하면 로켓배송 상품은 다음 날, 로켓프레시 상품은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배송 된다.

원하는 날짜에 맞춤 선물을 할 수 있는 ‘도착일 지정’ 서비스도 고객의 호응이 높다. 상대방이 고가·귀중품 등의 선물을 즉시 수령하지 못할 때, 확실하게 직접 받을 수 있는 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. 주문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, 익일 배송이 아닌 다른 배송일을 선택하여 도착일을 변경할 수 있다. 도착일 지정은 당일 결제 기준으로 7일 이내로 가능하다.

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“코로나19로 비대면 추석을 보내야 하는 고객을 위해 모바일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언택

트 선물하기를 다채롭게 준비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